

학교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조절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

김효순*

The Effects of the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on Internet Addict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Kim Hyo Soon *

요 약

이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중 학교환경요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영향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보호요인을 규명해 보려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재학생 539명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결과 학교환경요인인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은 모두 인터넷 중독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친구지지와 학업성취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분석결과와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on internet addiction. Especially, this study is focused on identify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identified the affecting factors of adolescents's internet addiction and established the causal model and research hypothesis. To test this study model and hypothesis, this study interviewed 539 young boys and girls who were attending to high schools using questionnai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 Keyword : 인터넷 중독(internet addiction), 학교요인(school environmental factor), 청소년(Adolescence)

• 제1저자 : 김효순
• 투고일 : 2009. 12. 10, 심사일 : 2009. 12. 12, 게재확정일 : 2010. 01. 26.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I. 서론

우리나라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일주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N세대로 통칭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인터넷은 이미 학교나 가정생활의 일 부분이 되어 있다. 인터넷의 활용은 정보화 사회를 연결해주는 도구로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심각하여 일부 청소년들은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인터넷 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증상은 더욱 심각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양적인 면에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이용자가 약물, 알코올, 또는 도박에 중독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에 중독되는 심리적 장애라고 하였다. 이는 인터넷 사용에 탐닉되어 이에 대한 의존성, 내성 및 금단증상 등과 같은 병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중독 상태를 말한다.

인터넷 중독에 잘못 길들여진 청소년들은 외톨이→인터넷 게임중독→학업중단의 순서를 밟거나 반대로 인터넷 게임중독→가정폭력→외톨이의 과정을 겪게 되며 단순히 인터넷이나 게임을 오래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는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중독된 대상과의 접촉을 끊을 경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쉽사리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 역시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인터넷 중독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학업성취감 등을 선정하여, 이들 요인에 따라 인터넷 중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해 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인터넷 중독의 개념

인터넷 사용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등장한 인터넷 역기능 중 하나가 인터넷 중독이다. 중독(addiction)은 특정한 기호, 습관 또는 행동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라고 정의된

대[1]. 중독의 개념을 대체로 물질 사용에 따른 생리적인 의존성과 내성 금단 현상을 동반하여 사회적, 직업적 기능 손상이 뒤따를 때 내려지는 진단이다. 중독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기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특정물질 즉 알코올, 니코틴, 약물에 의존하는 물질중독이고, 다른 하나는 도박, 쇼핑, 지나친 TV시청 등과 같이 특정한 행위나 활동에 의존하는 과정중독이다. 과정중독 현상 중 최근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컴퓨터와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한 중독과 이들을 포함하여 인터넷 활동 자체에 대한 중독을 말한다[2].

정신병리에서 중독은 알코올이나 코카인, 마리화나 등과 같은 각종 중독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리적 의존성과 내성, 금단증상을 동반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직업적 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의 장애가 수반된 상태로 정의하였다. 물질 사용으로 인한 중독과는 달리 인터넷 중독은 물질이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수행하려는 충동이나 욕구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충동조절 장애라 하며, 물질사용인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과 마찬가지로 금단과 내성, 사회적·직업적 기능수행에 장애를 가지고 오는 증상이다.

Young(1996)은 인터넷 중독 개념을 충동조절 장애의 하나로 규정하고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ental disorder)에 수록된 병리적 도박의 기준을 원용하여 진단 기준을 제안하였는데 인터넷 중독 장애가 알코올 중독이나 충동적 도박과 같은 실제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알코올 중독과 똑같은 유형의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다른 중독들과 마찬가지로 통제 상실, 갈망과 내성증상, 사회적 철회, 결혼 불화, 학업 실패, 과도한 재정적 부채, 실직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하위요인을 강박적 사용과 집착, 내성과 금단, 일상생활의 기능장애,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기대, 일탈행동 및 현실구분장애, 가상적인 대인관계 지향성으로 요약하였고[3], 성인 인터넷 중독 척도 개발 연구를 통해 가상세계 지향, 긍정적 기대, 내성과 몰입, 인터넷에 대한 자기인식을 인터넷 중독정도를 종합해 보면,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에 대한 과다하고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내성과 금단 증상을 비롯한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적인 결과가 심하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4,5].

이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단지 인터넷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다하고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현실생활에서 부정적인 결과들이 심각하게 들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터넷에 장시간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

2.1 개인적 특성요인

인터넷 중독의 성별차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고 한다. 남자 청소년은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며, 여자 청소년은 이메일이나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7].

Young(1996)의 연구에서 여자 피험자 239명, 남자피험자 157명이 참여한 경우를 대부분 남자의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남자 649명, 여자 647명으로 대상자 성비가 잘 통제된 연구를 수행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남자 93명, 여자 13명이 중독자로 보고됨으로써 절대적인 수에 있어 중독자에 남성이 많음이 나타났다[8]. 기계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친숙감문제, 남녀 정보화의 불평등문제, 서구와는 달리 인터넷사용에 남녀차가 적은 우리나라 현실 등 아직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인터넷 중독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9]. 성별이 인터넷 중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비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여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성향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10].

2.2 학교요인

2.2.1 교사의 지지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 하는 성인으로써,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신념·가치·태도 등을 형성하게 된다. 교사와 학생간의 심리적 유대, 교사의 인성적 특성, 가치관 학습동기 증진에 대한 태도 지적성취에 대한 열의, 지식 등은 학생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지도는 학생들의 인터넷 활용 행태 및 중독 성향에 영향을 준다[1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교사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성향이 낮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12]. 교사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인터넷 중독 점수가 낮았다[9].

2.2.2 친구의 지지

청소년기에는 가족보다는 또래나 친구들이의미 있는 타자로 여겨지기에 친구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의 소속이나 인정을 중요시 여기므로 친구압력 또한 중요한 강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친구압력은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도 영향을 미쳐 친구압력을 많이 받을수록 인터넷에 중독 될 확률이 증가하였다. 교우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의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우와의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영향이 좋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낮게 나타났다[13]. 인터넷 중독 위험군과 비위험군의 친구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 중독군이 비위험군보다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친구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다[14].

친구 지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친구의 지지는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학교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각종 정신적, 신체적 증상의 위험률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친구지지는 청소년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오락의 차원을 넘어서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친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2.2.3 학업 성취감

학습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며, 그 결과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15], 학업성취의 부진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을 낮게 하여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며 결국 비행으로 연결된다는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폭력적인 인터넷에 중독되어 보복이라는 대리만족의 욕구 충족으로써 인터넷 게임이 작용되었고 이것이 학교중퇴와 가출이라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으며, 학교부적응이 인터넷 중독을 가져오고 인터넷 중독이 다시 학교부적응의 심화를 가져와 결국 학교부적응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로 학교중퇴 및 가출 이외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폐해는 성적하락, 폭력, 부모관계 악화 등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집단이 성적부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은 낮은 성적과 학

업 스트레스를 있기 위해 인터넷에 더 몰입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3 인터넷 환경변인

2.3.1 인터넷 기대

인터넷 중독문제의 이해 및 치료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는 인터넷 기대, 즉 인터넷 이용 결과에 대한 기대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하는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터넷 기대가 인터넷 중독증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4]. 인터넷 기대의 하위 요인인 갈등 해소, 자신감 획득, 정보 획득, 인간관계 증진 중 갈등 해소가 인터넷 중독 변량의 33.4%를 설명해 설득력이 가장 높았고, 자신감 획득이 3.7%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결과는 중독증에 빠지는 사람은 견디기 힘든 내외적 긴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줄 심리내적 구조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심리내적 구조 대신에 중독적 행동이 내외적 긴장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대신한다는 설명과도 관련이 있다.

학업, 부모 또는 친구와의 갈등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와 인간관계를 증진하고 손상된 자아를 가상세계를 통해 만회하고 자신감을 획득하고자 하는 인터넷의 기대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

2.3.2 접근성

일반적으로 지리적인 거리,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 동기 및 인식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17] 접근가능성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비용이 싸 경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시간적으로 어느 때든 찾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쉽게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는 지에 관한 접근성은 시간과 공간이 고려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대상이 느끼는 거리감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18]. 인터넷 중독 집단이 비중독 집단에 비해 PC 방을 3배 정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2.3.3 익명성

익명성이란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익명성[20]을 들 수 있다.

익명성은 다음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문란한 성행동이나 불법적인 행동 등의 일탈을 부추길 수 있으며, 둘째,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 상황어 아닌

가상적인 상황에서만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며, 셋째, 우울과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이나 실직, 대인관계 갈등 등과 같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회피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과 가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다양한 요인을 들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학교요인들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학교환경요인을 들었으며, 학교요인으로는 교사의 지지와 친구의 지지, 그리고 학업성취감을 선정하였다. 이들 학교요인들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그 영향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정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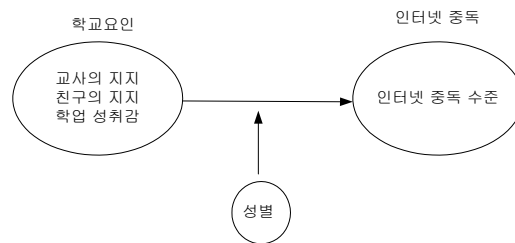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 <가설 1> 교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친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학업 성취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변수의 조작화

2.1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정과 동료들(2003)이 Young(1998)의 인터넷 중독 척도를 번역·수

정하여 제작한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다. 의존성 및 금단 증상, 부정적 결과, 내성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첫째, 의존성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강박적인 갈망이나 행동반응을 말한다. 둘째, 금단증상으로 이것은 인터넷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량이 감소할 경우 유발되는 불편한 감정이나 신체적인 결과이다. 셋째, 부정적인 결과로, 이것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신체적·심리적·학업적영역과 여가활동 및 대인관계에 있어 겪게 되는 문제나 장애를 말한다. 넷째, 내성으로 이것은 인터넷을 하면서 이전과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

2.2 학교요인

첫째, 교사의 지지는 교사와 학생간의 감정적인 유대와 교사의 관심도에 대한 학생의 지각정도를 의미하며[15],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척연구원(1993a)과 Riner(1998)가 개발한 것을 통합하여 김명자(2002)가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80이었다.

둘째, 친구의 지지란 사회행동을 모방하는 비슷한 나이의 영향력으로(Riner, 1998), 권미연(1997)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의 지지를 강하게 받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62이었다.

셋째, 학업성취감은 공부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며(정선경, 1998), 정선경(1998)이 개발한 것을 김명자(2002)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5문항을 사용하였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67이었다.

IV.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 소재 인문계 및 전문계 4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s of Samples

구분	내용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371	68.8
	여학생	168	31.2
	계	100.0	100.0
학교	전문계	262	48.6
	인문계	277	51.4
	계	539	100.0
학년	1학년	61	11.3
	2학년	184	34.1
	3학년	294	54.6
	계	539	100.0

2. 측정도구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등 3개의 요인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베리맥스 직교회전(Varimax Rotation)에 의한 요인 적재값을 산출하여 행렬로 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 교사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등 3개의 요인의 측정항목에 대한 Cronbach α 계수가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조절변수의 측정도구들은 모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학교요인 측정도구 검증결과
Table 2. Confirmatory Analysis of School Environmental Factors

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1. 교사지지	v1	.664	
	v2	.767	
	v3	.788	
	v4	.782	
2. 친구지지	v1		.740
	v2		.819
	v3		.787
	v4		.749
	v5		.689
3. 학업성취감	v1		.695
	v2		.757
	v3		.710
	v4		.734
eigen value	2.514	3.327	2.396
분산비율(%)	7.858	10.397	7.488
누적비율(%)	42.211	52.608	60.096
신뢰도 Cronbach Alpha	.780	.862	.767

3. 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14.0과 AMOS 6.0을 이용하여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제시되었던 독립변수, 즉 학교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따라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측면에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검증결과로서 도출된 전반적인 부합도(Overall model fit) 지수를 <표 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카이제곱값 1889.074, 자유도(df) 487, χ^2 에 대한 p 값 0.000으로 카이제곱값과 자유도, 그리고 p 값만으로 볼 때는 유의한 값이 되어 연구모형과 분석 자료가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카이제곱값이 매우 크고 그 확률값(p = 0.000)이 0.05보다 작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여 가설을 기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모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합도가 좋은 모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카이제곱값에만 의존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Bentler & Bonett, 1980: 591). 따라서 다른 부합지수를 같이 고려하여 연구모형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부합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기초부합지수(GFI), 조정부합지수(AGFI), 표준적합지수(NFI), 중대적합지수(IFI), 비교적합지수(CFI) 등이 모두 1에 가깝게 나타났다.

표 3. 모형검증 결과
Table 3. Verification of Model

구분	절대적합지수					중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A	RMR	NFI	IFI	CFI	AGIF
적합 지수	1889.074 (.000)	487	.906	.073	.048	.902	.907	.907	.903
적합 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본 연구의 가설검증은 구성개념 간의 영향관계를 AMOS 분석을 통해 얻은 경로계수와 고정지수(t값) 등을 가지고 유의 수준 0.05에서 채택여부를 <표 4>와 같이 검증하였다.

표 4. 인과관계 분석결과
Table 4. Analysis of Causality

가 설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t 값)	p	채택 여부
	표준화 계수				
1. 교사지지→ 인터넷중독	-.386	.060	6.533	.000	채택
2. 친구지지→ 인터넷중독	-.106	.049	2.054	.040	채택
3. 학업성취감→ 인터넷중독	-.125	.047	2.431	.015	채택

첫째, 교사의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386, 유의확률 .000으로 나타나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친구의 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106, 유의확률 .040으로 나타나 친구의 지지 역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학업 성취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계수 -.125, 유의확률 .015로 나타나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인과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의 조절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 분석에서 흔히 사용하는 집단 간 비교방법을 활용하였다. 집단 간 비교의 경우에는 여러 집단 간 비교도 가능하지만, 두 집단 간 비교방법을 활용하였다. 학교환경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연구모형 적합도는 <표 5>와 같이 여러 가지 적합지수를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성별에 따른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Table 5. Fitness of Research Model by Gender

구분	절대적합지수					중대적합지수			간명적합지수
	χ^2 (p)	df	GFI	RMSE A	RMR	NFI	IFI	CFI	AGIF
적합 지수	2574.444 (.000)	974	.904	.065	.047	.901	.908	.906	.902
적합 기준	-	-	.90 이상	.08 이하	.05 이하	.90이상			.90이상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의 가설검정은 <표 6>과 같다.

표 6.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 검증
Table 6. Verification of Moderating Effect by Gender

가 설	경로계수		C.R. (값)		p		채택여부		차이 여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교사지지→ 인터넷중독	-.320	-.408	-3.877	-5.582	.000	.000	채택	채택	있음
2.친구지지→ 인터넷중독	-.143	-.117	-2.372	-2.018	.009	.032	채택	채택	없음
3.학업성취감→ 인터넷중독	-.014	-.265	-.196	-3.359	.845	.000	기각	채택	있음

첫째, 학교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가설 1~3>까지 검증한 결과이다. 성별로 경로계수의 유의미성을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지(경로계수 -.320, p 값은 .000)와 친구지지(경로계수 -.143, p 값은 .009)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감(경로계수 -.014, p 값은 .845)은 인터넷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사의 지지(경로계수 -.408, p 값은 -.5582)와 친구지지(경로계수 -.117, p 값은 .032), 그리고 학업성취감(경로계수 -.265, p 값은 .000)이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지지와 학업성취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성별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요인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학교환경요인들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지지, 친구지지, 학업성취감 등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사지지와 학업성취감은 성별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청소년 지도방안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사지지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의 경우 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학생의 경우에 친구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의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성취감이 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결을 위해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표본은 청소년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 단위의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추출을 전국적 단위로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인혜, "현대인의 정신건강", 대왕사, 1999.
- [2] 조남근·양돈규,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호, 91-111쪽, 2001년.
- [3] 김청택·김동일·박종규·이수진, "한국 인터넷 중독 진단 척도 개발연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2002년.
- [4] 이순목, "평가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논리", 박기찬 (편집). 한국기업의 인사관리. 130-160. 서울: 박영사, 2005년.
- [5]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6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정보통신부, 2006년.
- [6] 장재홍·유정인·권혜수·김형수·최한나, "청소년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2년.
- [7] Griffiths, M., "Psychology of computer use : XL III. some comments in 'addictive use of the internet by Young'", Psychological Reports 80, 81-82, 1997.
- [8] Anderson, K.J.,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 an exploratory study", 1999.
- [9] 이계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년.
- [10] 조영란·이화자,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모형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4(3), 541-551, 2004년.
- [11] 이선애, "아동의 인터넷 중독과 관련요인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7(1) : 57-83, 2001년.
- [12] 한복희, "인터넷 중독 정도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역기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1년.

- [13] 조춘범.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게임중독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년.
- [14] 이시형,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년.
- [15] Hirschi, T. (1969). Cause of Delinquenc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6] 오현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 [17] 김영중,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1998년.
- [18] 안석, "인터넷의 중독적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소재 중학생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년.
- [19] 김형준·이상준·우정익·조항석·권혁중,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 및 중독관련 요인분석", 가정의학회지, 23(3), 334-343, 2002년.
- [20] Young, K. S. · Rogers, R.,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net addiction",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1): pp. 25-28, 1997.
- [21] 김은정·이세용·오승근, "한국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척도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1) : 125-139, 2003.
- [22] 이동수·김효순·김은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청소년의 인터넷 환경이 중독에 미친 실증적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제 14권, 제 3호, 250-257쪽, 2009년.
- [23] 이세용,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삼성생명 공익재단 사회건강연구소, 2000.
- [24] 이숙진,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25] 조영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측모형",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26]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y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3), pp. 237-244, 1996.
- [27] Young, K. S. "Caught in the net :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John Wiley & Sons Inc. 5, 1998a
- [28]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 237-244, 1998b

저 자 소개



김 효 순

2009년 :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2009년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강사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가족복지,
상담심리